

특별기고



정기연 주필

못 하는 일과 안 하는 일

고 나의 능력과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뜻하고, 후자는 할 수 있으나 의도적으로 핑계를 대어 미루고 안 하는 고쳐야 할 나쁜 습관이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며 할 일이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며 누군가에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다.

할 일이 있고 그 일을 자율적으로 찾아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보람에 사는 사람이며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행복하게 살려면 할 일을 찾아야 하고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직업이 돼 일하면서 살아야 한다. 필요에 따라 해야 할 일 이면서 못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그 일을 하는데 드는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것과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못 하는 일이라면 그 일에 신경을 쓰거나 집착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매달려야 한다. 할 일을 두고도 핑계를 대어 미루거나 못 하는 일로 결정해 안 하는 사람이나 공직자는 그 직장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공직자는 자기의 업무에 따른 일감이 주어지는데 그 일을 하면 고되므로 그 일을 피하려고 못 하는 일로 만들어 안 하고 있으며,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일로 만들어 안 하는 공직자는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월급제 직장인이나 공직자는 말은 일의 핑계를 대어 못 하는 일로

만들지 말고 일을 안 하고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되며 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청렴한 공직자의 자세는 부정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하는 일에 창의력을 발휘해서 이익을 창출해 내는 자세를 말한다. 일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해 경비를 절약하고 공사 기간 단축으로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이다.

인류문명의 발달은 일을 찾아서 일하는 즐거움으로 산 사람들이 만들어 낸 유산으로 발달해 왔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찾는 사람은 창의력이 있는 사람이며 할 일을 찾았으면 못 하는 일인가 안 하는 일인가를 분별해서 안 하는 일이라면 서둘러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는 항상 할 일을 찾아야 하며 그 일을 못 하는 일인가 안 하는 일인가를 분별해서 실천하는 유능한 실천 인이 돼야 성공한다.

인간이 가장 행복해지는 시간은 무엇인지의 할 일에 몰두하고 있는 때다. 안 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회사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는 남자의 모습은 가장 아름답다. 남편을 기다리며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는 아내의 모습은 천사의 모습보다 아름답다. 밤늦게까지 불을 밝히고 책을 읽는 학생은 믿음직스럽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달성했을 때 보람을 느낀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기만 한다면 참다운 즐거움이나 행복

은 느낄 수 없다.

회사에서 실직(失職)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답답함 때문에 더욱 괴로워한다. 실직으로 수입이 없어 생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다음의 문제다. 중국의 백장(百丈) 선사는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一日不作 一日不食)'고 가르쳤다. 하루는 제자들이 스승이 노구(老耄)에도 일하는 것이 민망해 호미를 감추자 스님은 하루를 굶었다. 철저한 작무생산(作務生産)의 정신이야말로 인생을 지켜주는 기둥이다.

부지런한 사람의 손은 모든 것을 주물러 황금으로 만든다. 미국의 강철왕 카네기는 '어떤 일을 하든지 힘껏 하면 그곳에서 광명이 발견된다.'라는 좌우명으로 살았다. 그래서 그는 부(富)와 명성을 얻었다. 열심히 일하고 땀 흘리는 사람, 그는 모든 것을 주물러 황금으로 만드는 사람이다. 성불(成佛)은 수도(修道)라는 일을 통해 이뤄지고 수학의 기쁨은 밭 가는 노동을 통해 이뤄진다. 땀 흘리는 사람에게만 성공의 열매를 딸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신축년 한해의 시간에 선택한 직업에서 주어진 업무에 안 하는 일이 없이 창의력을 발휘해 일하면서 일하는 즐거움으로 살면서 소득에 대한 보람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았으면 한다.

독자기고

지속가능한 농업, 밭농사 기계화부터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혼자 작업하면 열흘 넘게 걸릴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니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필자가 강의하고 있는 '뉴리더 농협가치향상교육'중 농촌현장 체험에서 나온 얘기다.

2020~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비대면 교육만 받고 입사한 범농협 MZ세대 신규직원들이 교육대상이다.

특히 2일자 교육프로그램은 특별히 농업 농촌에 대한 이해와 가치함양을 위해 농업현장을 찾아 일손을 보태고 있다.

지난주에는 경기 연천군에 있는 농촌마을을 찾아 '오미자밭' 잡초제거 작업을 도왔다.

1천평 가까이 되는 오미자 밭의 잡초들을 일일이 호미로 뽑는 작업이었다.

그런데 잡초가 워낙 무성해서 심어놓은 오미자를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심지어 허리높이까지 자란 잡초도 수도룩했으니 말 다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강하게 내리찍는 6월의 땀별은 농사일이 서툰 교육생들을 많이 힘들게 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옹기종기 모여 물 한모금씩 마시며 한마디씩 한다.

“교수님, 이런 작업을 손으로 꼭 해야 하나요? 기계가 해주면 되지 않나요?” 하는 것들이었다.

그렇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 MZ세대들에게 단순한 호미질이 이해되지 않을 법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벼 재배의 기계화율은 2021년 99.3%에 달해 일부 방제 작업 외에는 대부분 작업에 기계가 활용되고 있지만 양파(66.3%), 마늘(61.8%), 고추(48.3%) 등 주요 밭작물의 평균 기계화율은 63.3%에 불과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논밭의 면적이 거의 반반수준인데도 말이다.

우리가 밭농사 기계화에 관심 가져야 하는 이유다.

농촌의 고령화와 고질적인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욱 그렇다.

물론 밭작물은 종류와 재배 방식이 다양한 데다 농작업 과정이 복잡해 기계화율 진척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밭농사 기계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밭농사 기계화를 제고를 위해 모두의 지혜를 모을 때다.



수사일보 <http://www.susaibo.com>
62033 광주광역시 서구 운천로 56번길, 7 101-403

회장	황일봉	대표전화	(062)-373-6448	FAX	(062)227-0084
사장	이문수	광고	(062)-373-6448	구독료	월 10,000원
발행·편집인	이기영	등록번호	광주 가69(일간)	인쇄처	(주)남도프린테크
부사장	기백관				
취재본부장	서용운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수사일보가 지역민과 함께 유익하고 알찬 지면을 만들기 위해 독자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오피니언 면은 은 독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마당입니다. 이웃들의 미담이나 생활 불편사항 개선점 기고 등을 보내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실 곳 이메일 zkj0000@naver.com 전화 062-373-6448

◆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